

## ActiveX?

예전에는 웹 브라우저와 HTML 문서 만으로는 수많은 형식의 기능(동영상 재생, 문서 편집 등등)과 콘텐츠를 소화하기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썬 마이크로시스템즈(현 오라클)에서 Java JVM을 통해 웹 페이지에서 동적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썬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IE의 액티브 X입니다. 액티브 X는 JVM보다 강력한 기능을 원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PC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기존에 웹 브라우저가 하던 역할인 인터넷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액티브 X를 설치함에 따라 웹 브라우저 및 웹 사이트의 기능을 거의 제한없이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실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행이나 은행, 증권 등 금융 거래용, 그리고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공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관공서용으로 수없이 많은 액티브 X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X는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웹브라우저가 인터넷으로부터 PC를 보호하던 기준을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악성코드를 타고 PC 원격 제어도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관리자 권한을 얻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Active X는 없어진 추세이며, 한국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나 은행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국내 웹에 ActiveX가 정착되게 된 이유 및 배경

2000년대 한국 정보보호인증원에서 개발한 대칭키 블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 금융 거래 및 관공서 웹페이지에서 액티브 X 설치를 강제함에 따라 액티브X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IE가 사실상 표준 웹 브라우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웹 표준과 웹 접근성

웹 표준이란, 홈페이지가 보일 수 있는 모든 브라우저나 OS에서 정상적인 화면이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문서를 웹에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인 W3c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목적과 방법에 맞게 웹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사용자들은 IE 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함에 따라 IE를 중심으로 한 비표준 방식의 제작형태로는 원할한 접근이 어려워 졌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운영체제 혹은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웹표준이 재정되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이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에 자막을 삽입하거나 지체 장애인이 오직 키보드를 통해서만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에서 만든 WCAG 국제지침을 바탕으로 KWAG를 제정하였습니다.

## 국내외 웹 표준과 웹 접근성

### 국내 웹 접근성 현황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민관 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국내 웹 표준 현황

2008년 4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 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제정 사항을 확정·고시하였다. 또한 이를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2009년 8월 19일자로 제정·고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2012년 7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웹 환경 개선과 인터넷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위키피디아 -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

### 위 내용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

작년 말에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에는 국가간의 언어 장벽을 없애고, 유튜브 사용자를 넓히기 위해 기능을 적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구글이 웹 접근성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 고민이 이 기능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IT 기업이 세상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